광주 자치구 "성금 목표액 채워라" 과열

통장이 호별방문 모금 '물의'

실적 따라 지원액 산정 … 자발참여 취지 무색

연말연시를 맞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광주공동모금회)와 광주시 등이 공동으로 추진중인 이웃돕기 모금활동과 관련, 각 자치구가 모금액을 채우기 위해 열을 올리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모금활동의 기본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공동모금회는 보건복지부와 광주시 등과 공동으로 지난 1일부터 '나의 1% 나눔, 우리의 100% 행복'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모금활동 '희망 2011 나눔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011년 1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모금활동은 자치구별로 1~3억원 사이의 목표금액을 정한 뒤 관할 동사무소에 협조공문을 보내 통장이 직접 주민을 찾아가 모금참여를 부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통장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과도하게 모금참여를 유도하면서 주민들이 정신적인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평소 ARS를 통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고 있다는 주부 A씨는 "지난 일요일 오후 통장이 집으로 찾아온 뒤 반강제적으로 모금참여를 요구해 불쾌했다"면서 "통장으로부터 '할당량'이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최근 광주공동모금회에는 과도한 모금활동에 대한 항의전화가 수차례 걸려오기도 했다.

이처럼 모금활동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은 광주공동모금회 측이 자치구별 모금액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지원액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공동모금회는 모금활동이 마무리되는 연초에 각 자치구의 모금액을 산정, 모금기여도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을 70%와 30%씩 반영해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광주 모 구청 관계자는 "예산부족에 시달리는 자치구 입장에서는 광주공동모금회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모금액을 늘리면 지원금액 역시 늘어나는 구조가 과열 모금활동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공동모금회 관계자는 "더 많은 성금을 모금한 자치구에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라며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불우이웃돕기 '아름다운 하루' 9일 광주시 남구 봉선동 고백교회에서 열린 불우이웃돕기 '아름다운 하루' 행사에서 주민들이 기증된 옷을 고르고 있다. 남구와 아름다운가게 봉선점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의 수익금은 사회복지시설의 동절기 난방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원룸 불법 증개축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무원 등 2명 영장

광주경찰, 금품 수사 확대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다세대 주택 불법 증축 사실을 알고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이를 묵인한 서구청 건축과 직원 김모(44·8급)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공무원에게 부탁해 "단속을 무마시켜주겠다"며 건물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H건축사무소 대표 김모(61)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및 건축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두 차례 실시한 건축물 지도 단속 과정에서 불법 증축사실을 적발한 뒤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김씨의 부탁을 받고 시정조치를 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단속 과정에서 불법 증축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H건축사무소 대표 김씨는 공무원인 김씨에게 부탁해 "단속을 무마시켜주겠다"며 건물주로부터 현금 4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의 다세대주택의 경우 50~60% 가량이 불법 증축 건물임에도 단속을 피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김씨는 건축사 자격증 없이 자신이 고용한 후배 건축사의 명의를 빌려 설계와 감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와 H건축사무소 대표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으며, 다른 공무원도 연관이 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4일과 지난 6일 서구청 건축과 사무실과 북구를 제외한 4개 구청 건축과 사무실, 건축사 사무실 등 모두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검토한 뒤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금광기업 회생계획안 부결

법원, 파산 여부 15일 결정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금광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채권단에 의해 부결됨에 따라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9일 광주지법 파산부(부장판사 선재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광주지법에서 열린 '금광기업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 처리됐다. 이날 집회는 지난 7일 금광기업 관리인들이 법원에 회생계획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심리 및 결의하기 위해 열렸다.

금광기업의 법정 관리인들은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자 재판부에 회생안 수정과 채권단과의 추가 협의 절차를 신청하지 않고 강제인가 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5일 회생계획안에 대한 강제인가나 회생절차 폐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회생계획안이 강제인가되지 않을 경우 금광기업은 파산하게 된다.

금광기업은 유동성 위기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27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5월 29일 금광기업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금광기업은 2008년 기준 시공능력 평가액이 6994억원으로, 광주·전남 3위 규모의 중견 건설사다. 송원학원과 광주컨트리클럽, 대아건설, 금광주택, 현대백화점 광주점(옛 송원백화점) 등 10여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원참 〈8192〉 김종두

임병석 C&그룹 회장 유죄

대구지법, 징역 5년 선고

부도위기의 계열사에 다른 계열사 자금을 부당지원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등으로 기소된 임병석(49) C&그룹 회장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는 9일 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호남권 모 세무서장

뇌물의혹 경찰 수사

호남권의 한 세무서장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서울서대문경찰 등에 따르면 세무서장 A씨는 2004~2005년 경기도 모 세무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지역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세금 관련 편의를 봐주겠다'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개조한 한옥…알고보니 도박장

전북경찰, 수천만원대 도박 조폭·주부 등 62명 검거

개조한 한옥에 도박장을 개설한 뒤 도박판을 벌인 총책과 주부 등 6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도박단 총책 이모(42)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30분께 전주시 다가동의 한 한옥을 월세를 임대했다. 이씨는 지역 모집책을 이용해 타 시·도에서 속칭 '고스톱 사키 선수'들을 모은 뒤 승합차로 도박장까지 실어 날랐다.

이른바 한 판당 판돈은 대략 40만~100만원. 이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한옥 입구 2곳에 망을 세웠다. 도박판에 참여한 사람은 상습 도박자·주부·조직폭력배·무직자 등 모두 62명.

이들은 이곳에서 4시간 동안 줄도박을 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5430만원과 화투·무전기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씨가 총책과 모집책·운반책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전북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도 대형 도박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윤광장 5·18기념재단 이사장 공식 사퇴

재단, 후보 공모

5·18 기념재단 윤광장 이사장이 공식 사퇴했다.

5·18 기념재단 이사회는 9일 서구 쌍촌동 재단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연 뒤 사퇴 의사를 밝힌 윤 이사장 의견을 수렴하기로 의결했다.

윤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은 내 부덕의 소치이고 이를 계기로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본의 아니게 실수한 것인데, 내 진심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5·18 기념재단은 이사 6명으로 구성된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꾸렸으며, 내년 1월 중순께 공모를 통해 후보자 추천을 받은 뒤 2월 초께 이사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특급호텔 취직시켜줄게"

9명에 돈 받은 통장 검거

광주서부경찰은 9일 특급호텔에 채용해 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현직 통장 이모(56)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초순부터 지난 10월 말까지 윤모(59)씨 등 같은 동네 주민과 지인 9명에게 "광주의 한 특급호텔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총 7000만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검찰 수사관이 女수사관 성추행 의혹

광주지검에 고소장

현직 검찰 수사관이 신입 여자 수사관을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검으로 발령난 A(여·23·9급)씨가 선배 수사관 B(6급)씨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광주지검에 첫 출근한 이후 B씨로부터 사흘동안 성추행을 당했다. 성추행은 첫 출근한 날 회식자리와 둘째 날 퇴근 후, 셋째 날 노래방에서 이뤄졌다고 A씨 측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성폭력 전담 여성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해 고소장의 진위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A씨의 소속 부서를 재배치했다.

광주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아파트 8층서 추락 나무 걸려 무사

쌍나팔

○…여수의 한 아파트 8층에서 추락한 10대 청소년이 이 아파트 화단에 조성된 단풍나무에 떨어지는 바람에 큰 부상 없이 무사히 구조.

○…9일 119구조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0분께 여수시 미평동 A아파트 8층에 사는 차모(15)양이 발코니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던 중 미끄러지면서 1층 아래로 추락했다는 것.

○…차양은 1층 화단에 조성된 단풍나무에 걸리는 통에 발목 골절상만 입고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된 뒤 치료를 받고 귀가.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